

영화 <인천>(1981)에 관한 평가와 관객의 인식 양상

Evaluation of Hollywood and Recognition of Audience on *Incheon(1981)*

김종국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Jong-Guk Kim(2010kjg@gmail.com)

요약

할리우드의 영화제작 인력이 국내에서 촬영한 <인천Incheon>(테렌스 영, 1981)은 당대의 한국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한 영화이다. <인천>의 제작에 참여한 원로영화인들의 구술에 따르면, <인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할리우드의 제작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후의 한국영화제작 시스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세계영화사에서 실패한 영화로 기록되었고, 한국영화사에서 사라진 영화의 역사적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할리우드의 제작 시스템으로 제작된 영화 <인천>에 관한 전문가 평가와 관객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인천>에 관한 전문가 평가는 개봉 당시의 언론기사 및 영화에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에 관한 학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인천>을 극장이나 케이블TV, 인터넷 등에서 관람한 관객의 평가를 인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인천>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는 천편일률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관객은 영화를 평가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인천>(1981) | 할리우드 | 비평 | 관객 | 인식 |

Abstract

Korean film actors and staff participated in Incheon(Terence Young, 1981) Hollywood filmmaking workforces had take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dictation of the elders who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film Incheon, through the movie they were able to experience Hollywood film production system and said it had an impact on Korea filmmaking system. It is the reason that this study tracks the historical traces of the almost forgotten film. This article analyzed an expert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the audience about the film Incheon produced by the Hollywood production system. Expert review was utilized in such press articles and tomes about the actors and staff who participated in the film. Also, the audience rating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recognition at the theater or watching cable TV, Internet etc. Evaluation of expert in Incheon was monotonous but negatively red, I could confirm that the viewers recognized in various ways, rather than evaluated the film.

■ keyword : | Incheon(Terence Young, 1981) | Hollywood | Review | Audience | Recognition |

* 이 논문은 2016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10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22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22일

교신저자 : 김종국, e-mail : 2010kjg@gmail.com

1. 서론

1.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할리우드의 제작 시스템으로 제작된 영화 <인천>(1981)에 관한 미국 내의 평가와 관객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인천>(1981)의 제작과정과 영화적 유산』(2014)이 한국전쟁의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1979년 제작 당시 할리우드의 배우와 스태프가 국내에 들어와 촬영한 <인천>에 관한 한국영화사에서의 위상과 관점을 다뤘다면, 이 연구는 1981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한 <인천>에 관한 평가와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6년 현재의 한국영화는 국내에서의 높은 평가와 흥행을 넘어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갑자기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한국영화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016년 여름 <인천상륙작전>이 개봉된 시점에 한국전쟁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오래전에 국내에서 촬영한 <인천>의 제작과 상영 당시의 평가는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교류하는 지금의 한국영화를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준다.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Lee, 2016)은 한국전쟁의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를 주요 소재로 하고 있는 한국영화이다. 태원엔터테인먼트 제작의 감독, 각본이 이전에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포화 속으로Into the Fire>(2010)와 동일하다. 맥아더役に 니슨(Liam Neeson)이 캐스팅된 화제작이다. 영문제목 크로마이트는 전쟁 당시 연합군의 인천상륙을 위한 작전명이며, 이를 수행하는 8명의 영웅 이야기를 다룬다. 이 영화의 제작계획에 관한 할리우드의 평가는 A급 할리우드 배우 니슨의 캐스팅에 집중되고 있다(Lee, 2015). 이와 동일한 소재로 감독을 비롯한 할리우드의 스태프와 배우가 촬영한 과거의 <인천>에 관한 평가와 관객의 인식은 한국영화에 영화적 교훈이 되기에 충분하다.

1.2 선행연구

선행연구 『<인천>(1981)의 제작과정과 영화적 유산』은 영화 <인천>의 제작에 참여했던 원로영화인들의 기술을 통해 그것의 영화적 유산을 되돌아본다. <인천>

의 제작과정에서 제작부장, 특수효과, 소품 또는 소도구, 의상 등을 담당한 스태프들의 증언을 담았다. 이 연구는 <인천>의 제작에 유명한 당대를 대표하는 한국배우와 무명의 보조출연자, 스태프들이 참여했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스태프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영화 <인천>(Inchon!, 1981)은 현장 스태프로 참여했던 원로영화인의 구전과 촬영 당시의 신문기사로만 확인할 수 있는 유산이다. 언론기사의 내용은 한국영화가 처음으로 할리우드의 제작방식을 경험했다는 증언이나 할리우드의 유명한 감독과 배우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 등이다. 할리우드 영화 <인천>은 1950년 인천상륙작전 소재의 반공영화이며, 국내의 유명 배우들이 인천과 서울역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완성된 <인천>은 북미 지역에서 개봉되었지만, 세계영화사에서 흥행참패로 기록되고 있고 한국영화사에서는 일부 원로영화인들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1.3 연구방법

이 연구의 문제 및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첫째,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인천>(1981)이 북미에서 개봉한 시기에 발표된 평가의 내용을 살펴본다. <인천> 제작에 참여한 할리우드의 제작자, 감독, 배우, 스태프들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인천>의 북미 개봉시 비평계의 반응을 조사한다. 둘째, <인천>을 극장이나 케이블TV, 인터넷에서 접한 관객들의 평가 및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인천>은 개봉 당시 흥행에 참패한 영화이다. 그렇지만, <인천>은 할리우드의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국내에 들어와 한국영화 스태프 및 배우들과 협업을 시도한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 관한 할리우드의 평가와 인식 태도를 통해 지금의 한국영화와의 관계를 조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할리우드 영화 <인천>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이 연구가 국내 최초이다. 관련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인천>의 흥행 참패로 학계 및 현장에서 잊혀지면서 기억의 서술에서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2016년 한국영화의 할리우드 진출과 교류가 잦은 상황에서, 이 연구의 의미는 과거의 잊혀진 영화의 발골을 통해 한국영화산업과 할리우드 영화산업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영화사적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인천>의 제작에서부터 상영에 이르기까지의 관련된 자료를 조사 정리한다. 그리고 1981년 프리미어 시사회와 북미 개봉 당시 영화 전문가의 평가와 관객의 인식 양상을 분석한다. 흥행 실패로, 국내에는 소개된 적이 없이 북미에서만 개봉된 1981년 당시 영화 전문가들의 리뷰를 중심으로 <인천>에 관한 평가를 고찰한다. <인천>에 관한 전문가 비평은 주로 당시의 언론기사 및 영화에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에 관한 학술서 등을 문헌조사한다. 전문가 비평과 별도로 <인천>을 극장이나 케이블TV, 인터넷 등에서 관람한 관객들의 평가를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관객의 인식 양상에 관한 자료는 IMDb와 같은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게시글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137분 전체가 업로드된 비메오(Vimeo.com)의 영화 <인천>을 1차 문헌자료로 채택한다. 이 영상은 미국 케이블TV에서 방영된 것으로, 2.35:1의 오리지널 화면 비율은 1.33:1로 전환되어 화질과 사운드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영화 전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II. <인천>의 제작과 상영

영화 <인천>의 감독은 영(Terence Young)으로 유명하며, 맥아더 역의 올리비에(Laurence Olivier), 비셋(Jacqueline Bisset), 가자라(Ben Gazzara), 미후네(Toshirô Mifune), 라운드트리(Richard Roundtree) 등이 출연한다. 영화의 제작국가는 한국과 미국으로 표기되고 있다. 전체 제작기간은 1979년 4월부터 10월, 촬영기간은 1979년 5월 21일에서 8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인천, 서울역을 비롯한 촬영 당시의 국내 기사는 <인천!>, <오, 인천!>으로 소개하고 있다. 총제작비는 4천 6백만 달러로 촬영 시에 많은 미군이 보조출연자로 참여했다. 최종 완성된 영화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1981년 5월 4일에 프리미어 상영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영화의 장르는 전쟁영화와 휴먼드라마이며, 한국전

쟁에서의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의 활약상을 그린 전투와 등장인물 간의 드라마가 교차된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젊은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가 병치된다. 영화제목의 자막에 이어 38도선을 넘는 북한군과 남한 지역의 피난민들이 교차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장면이 바뀌면, 38도선 인근의 고가구점에서 바바라 홀스위스(비셋)와 주인(이낙훈)이 비즈니스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북한군의 남침을 알리는 라디오 뉴스가 들리고, 급하게 탈출을 시도한다. 그녀를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중 한국인 운전기사(이영후)가 폭격으로 사망하고, 바바라가 직접 운전을 해서 서울 한강철교에 도착한다. 폭파를 앞둔 철교 위에서 그녀는 5명의 어린 고아들과 동행하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피난민들 속에서 그녀는 과감하게도 북한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바바라의 남편인 미군장교 프랭크 홀스위스(가자라)는 부관인 어거스트 헨더슨(라운드트리)의 도움으로 그녀와 재회한다. 도쿄에서 맥아더는 홀스위스로 하여금 인천작전의 임무수행을 명령한다. 홀스위스 소대는 인천으로 잠입하고, 인천 앞 바다에 대기하던 맥아더에게 등대를 이용한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한다. 홀스위스 일행과 북한군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는 사이에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다. 서울로 들어오는 거리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맥아더를 맞이한다. 맥아더가 이승만(양광남)을 만나면, 이제 장면은 실제 맥아더의 뉴스릴 필름으로 전환된다.

<인천>은 일본의 이시이(Mitsuahari Ishii)가 설립한 영화사 원 웨이 프로덕션(One Way Productions)이 제작했고, 그는 크레딧에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 각본의 무어(Robin Moore)는 신의 기사에 따른 맥아더의 영혼과 신념을 묘사한다. 영화와 TV에서 활동한 골드스미스(Jerry Goldsmith)가 음악을 맡았다. 기록에 의하면, 촬영은 할리우드, 유럽, 도쿄, 서울 등에서 진행됐다고 한다[2]. 한국전쟁 당시 실제 인천작전에 참여했던 퇴역군인이 기술자문을 했고, 미군 1,500명이 보조출연자로 참여했다[3]. 1981년 5월 경 케네디 센터에서 퇴역한 미해군들을 대상으로 140분 분량으로 프리미어 상영이 이뤄졌다. 1982년 2월 13일에는 레이건 대

통령이 백악관에서 상영했고, 그 해 5월에는 35회 칸느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4]. MGM/UA가 배급하면서, 1982년 9월 17일에 105분으로 편집된 영화가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서 개봉되었다[5]. 극장에서의 흥행참패 이후로 <인천>은 비디오 등으로 출시된 적이 없고, 미국 케이블TV에서 상영된 자료가 유튜브와 비메오에 업로드되었다.

III. <인천>의 할리우드 전문가 평가

얼마 전 할리우드 리포터(Hollywood Reporter)는 니슨이 한국전쟁 소재의 서사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 역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6]. 국내 제작사의 한국영화에 할리우드 스타가 캐스팅된 거의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인천 전투와 맥아더를 묘사한 이전의 영화들로는 펙(Gregory Peck) 주연의 <맥아더MacArthur>(1977), 올리비에(Laurence Olivier)가 맥아더 역을 맡아 흥행에서 참패한 <인천>(1981),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배경의 존스(Tommy Lee Jones)가 맥아더 역을 맡은 <엠퍼러 Emperor>(2012) 등이 있다. 맥아더, 인천 전투, 한국전쟁 등과 관련해서 항상 언급되는 <인천>은 박스오피스에서 실패한 영화로 소개된다.

<인천>의 제작과 상영 당시의 시기로 돌아가 보면,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에서의 수익은 190만 달러였고, 총수익은 520만 달러였다. 4천4백만 달러의 손실을 냈고, 1982년 개봉된 영화들 가운데 최악이었다. 1980년대를 대표해서도 박스오피스 최악의 흥행 실패작이었다[7]. 상영 당시 시카고 트리뷴, 워싱턴 포스트 등의 미국언론들은 <인천>을 “영화역사상 최악의 상업적 재앙”으로 평가했다. 당시 리뷰의 혹평 속에서 <인천>은 최악의 실패작으로 기록되면서 영화사에서 잊혀졌다. 한국영화사에서는 <인천>의 국내 촬영에 참여한 원로영화인 사이에서 회자될 뿐이다. 영이나 올리비에 같은 영화인의 자서전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영화로 기록된다.

“군사 스펙터클 장르로서 <인천>은 영화역사상 가

장 유감스러운 영화 가운데 하나이다[8].” 촬영 당시의 기록을 보면, “촬영을 시작한 1979년 8월 38°C를 넘나드는 한국날씨 속에서, 007시리즈 가운데 <007살인번호>(1962), <007위기일발>(1963)을 연출한 베테랑 영 감독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완벽하게 제작해 둔 등대 세트가 태풍으로 사라졌고, 전투복을 입은 3,000명 이상의 보조출연자들은 더위에 지쳐 가고 있었다. 더 안 좋은 상황은 관절염으로 다리를 지는 주연 배우가 텐트 안에 누워있었고, 계약금을 받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연급 여배우 또한 후두염을 앓고 있었다. 영화의 투자자는 자신이 창당한 어린이 발레단의 등장과 예수의 이미지를 보완한 시나리오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었다[9].”

서사의 구성과 스토리는 싸구려 선전문구 같은 대사의 삽입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농담들이 있을 뿐이다[10].” 플롯은 신의 인도를 강조하면서 연합군을 이끄는 맥아더의 1950년 인천상륙작전을 서술한다. 맥아더를 연기하는 올리비에가 거의 모든 시퀀스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배역을 담당한다. 무어(Robin Moore)와 세비지(Paul Savage)의 각본은 맥아더 외의 모든 인물을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묘사한다. 일련의 지엽적인 플롯은 북한의 남침과 그에 대항하는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뤄지지만,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서사와 관련해서 가장 치명적인 평가가 “영성한 이야기[11]”라는 것이다. “<인천>이 묘사하는 가장 명백하고 감내하기 힘든 결점은 허술한 이야기 구성 양식이며, 큰 그림에 작은 그림을 꿰맞추려는 욕망은 진부함만 남겨놓는다. 작은 그림은 가자라(Ben Gazzara), 비셋(Jacqueline Bisset), 라운드트리(Richard Roundtree) 등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목표를 잃고 단절된 산만한 시퀀스를 구성한다. 큰 그림은 인천 전투를 대담하게 계획하는 맥아더와 그의 부하들을 과장되고 역사를 보여주는 듯한 에피소드에 집중한다. 맥아더 경력 최후의 작전은 신속하게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의 공급선을 차단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었다[12].” 이야기의 영성한 구성은 등대 불빛을 이용해야 하는 특수부대의 중요한 임무 수행에서 부각된다. 연합군을 인천항으

로 유도해줄 등대의 불빛이 커졌다가 다시 켜지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그 배경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의 매끄러운 연결을 방해하는 장면들이 거의 모든 시퀀스에서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야기의 균형감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재앙의 묘사를 비롯해 피난민들로 가득찬 한강철교의 폭파 장면은 과도한 인위적인 설정으로 진부해지고 만다. 5명의 어린 고아들을 태운 비셋의 위태로운 택시 설정이 긴장감을 주지 못하고, 가자라가 이따금씩 내뿜는 모호한 대사는 그럴듯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군인들의 기여를 반감시킨다.

역시 주연급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평가가 가장 혹독하다. <인천>을 ‘히스테릭한 역사서사’이며, ‘<그린 베레> 보다 재미없고 공격적이지 않은 가장 비싼 B급 영화[12]’라는 평가에서 거의 모든 배우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 영화예산의 대부분이 규모가 큰 전투장면에 쓰여졌지만, 극적 효과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많은 폭발 장면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포탄이 터지기도 전에 군인들의 신체가 허공으로 치솟는다. <인천>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 예로 미국 후원자들을 귀여운 얼굴 표정으로 다정하게 바라보는 어린 고아들의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더 부정적인 평가로는 김빠진, 연결되지 않는 영화라는 혹평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명한 맥아더의 위상을 보여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화 <인천>의 진행은 재미없고 전후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 감독이 수많은 보조출연자를 충분히 잘 활용한 군중 장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전투장면이다. 그러나 맥아더 역의 올리비에에는 육체적으로 수척해 보이고 빈약하다. 또한 전쟁이라는 역사의 격변을 묘사하기에 피난민으로 등장하는 비셋은 지나치게 세련되어 보이고, 그녀의 연인 벤 가자라는 사팔뜨기 해병처럼 보인다[13].” 물론, 덜 부정적인 평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엄청난 예산의 폭탄만큼이나 교훈의 불발탄이 컸지만, 몇몇의 뛰어난 연기와 각본의 박진감이 영화의 극적인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14]”는 것이다.

IV. <인천>의 관객 인식 양상

<인천>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는 1981년 개봉 당시 미국 내의 각종 언론과 <인천>에 참여한 스태프와 배우들에 관한 전문가의 회고 자료 및 관련 문헌 등을 참고했다면, <인천>에 관한 관객의 인식 태도 및 양상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케이블TV와 인터넷 등에서 영화를 보고 인터넷 영화데이터베이스 IMDb, 영화 정보 사이트 로튼 토마토(Rotten Tomatoes), 데드라인(Deadline.com),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게시물 및 댓글 등을 분석한다. 영화사에서 실패작으로 기록되고 있는 <인천>에 관한 전문 문헌은 많지 않으며, 영화 또한 개봉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잊혀지면서 그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천>에 관한 관객의 인식은 영화의 전체적인 인상, 촬영시 보조출연자 또는 스태프로 참여한 경현, 감독, 배우 및 전투장면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고 있다.

영화 <인천>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우드(Ed Wood) 스타일이라서? 혹은 어떤 새로운 비참한 경험이어서?(IMDb 회원 게시물.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XtroTerrestrial. 2008.9.13).

Re: 영화가 많이 나쁘지는 않았다. 올리비에의 맥아더는 과도한 메이크업을 견딜 수 있다면 믿음만 하며, 좋은 액션 장면들이 많이 있다. 유일한 불만은 영화의 흐름이 고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음악이 훌륭했고, 촬영이 잘 되었으며 특수효과는 1981년 당시 수준으로는 최고였다. 이 영화를 역사수업에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토요일 오후 시간이 충분히 한가하다면 완벽한 영화이다(Re: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JH_Kalashnikov. 2009.4.1).

Re: Re: 전쟁액션은 꽤 스펙터클하고 잔인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1981년 당시의 실제 항공기와 탱크를 사용했음에 틀림없다. 2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액션영화이다(believable? detune. 2012.5.5).

위의 관객 인식은 IMDb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으로 그에 대한 댓글들이다. <인천>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이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오락영화로서 일

부 전투장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체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영화 자체의 완성도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관객은 감독, 배우, 액션장면, 음악 등 영화의 요소들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튼 토마토의 관객 리뷰는 “영화역사상 가장 큰 실패작이라는 참담한 명성에 부응하는 영화이다. 올리비에에는 이전에 그러한 공포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다. 그것은 TV드라마 같은 느낌이 든다(Sean. 2007)”는 등 훨씬 부정적이며 구체적이다. 이 영화는 목소리 크고 흥미 없는 교사가 떠드는 말도 안 되는 역사수업 같으며(Charles. 2013), 오락적 요소는 이야기의 느린 속도에 묻히고, 서브 플롯은 흥미도 즐거움도 없고 이야기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 물론 미국 여성이 5명의 귀여운 아이들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진정으로 따뜻한 것임에 틀림없다. 작전을 준비하던 맥아더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성공할 것이다’는 대사는 정말 허세 같고 과장되어 보인다(Mr D. 2013). 다음은 <인천>의 영화제작에 참여했거나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경험에 관한 글들이다.

나의 아버지는 이 미친 촬영에서 조감독이었다. 금요일 밤에 주인공이 한 줄 대사를 하면, 다른 등장인물이 거기에 반응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각본이 토요일에 변경되면 배우들은 일요일에 모든 반응솥을 다시 촬영해야 했다고 한다. 기본 편집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세트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Deadline. 정보에 대한 감사의 글. 2012.9.2).

16살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갔다. 솔직히 그때는 어렸고 영화를 보러가는 것이 그냥 좋았다. 이 영화가 좋은지 나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또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80세인 아버지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고 계신다(IMDb. 극장에서 본 영화. wildj7. 2012.8.17).

아버지가 한국에 주둔 할 때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이 영화의 보조출연자였다. 나는 미군의 부양가족을 위한 썸머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간당 \$1.85을 받고 육군 사무실에서 사무원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점심을 포함한 일당 \$30의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공포탄이 든 M1 소총을 쏘면서 참호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특수효과 폭발 때는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했다. 좋은 시간이었다. 어떤 날은 호주 군인으로 전투 중인 연합군을 보기 위해 군중들과 달리기도 했다. 너무 큰 철모를 쓰고 벽에서 뛰어내려야 했던 장면은 실제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내 기억에 하루는 리차드 라운드트리와 벤가자라가 참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곰팡이가 생긴 군복을 받던 텐트 안에는 올리비에의 이름이 적힌 의상들이 있었다(IMDb. 나는 고등학생 때 보조출연자였다. stasis63. 2011.3.16).

오산 공군기지에서 보조출연자로 일하면서, 비셋, 안센, 가자라, 라운드트리, 리드, 올리비에를 볼 수 있었다는 영화제작에 참여한 인상은 더욱 구체적이다. 비셋이 가장 멋있었고, 그녀는 매우 친절해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해주었다거나, 촬영장의 왕복 교통이 무료였고, 식사를 포함해 하루에 \$30을 받았다는 등은 기록 문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증언이다. 30년 전 4천만 달러의 예산은 엄청난 것이었고, 한국전쟁 관련 영화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 기억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세트에서 촬영의 몇 초를 기다리면서 보낸 일상도 회고되고 있다. 특히 기억하기 싫은 사건으로 촬영 중에 한국 군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보조출연자였던 미군 가운데 한 명이 곡사포의 강력한 공포탄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다친 것을 봤다는 진술은 당시 촬영의 전근대식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한국군의 탱크 지휘관은 무자비해서 촬영 사이 한가한 시간 동안에 그들은 부하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거나 주먹으로 구타하기도 했고, 주변을 한 바퀴 뛰게 하거나 탱크 밑을 기도록 했는데, 평화협정 없이 DMZ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매우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회고는 과거 한국군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는 현금 및 자동차 경품의 광고도 있었다고 하며, 영화의 재정, 각본, 연기 등이 좋건 나쁘건 간에, 이벤트로서의 <인천>은 군사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였고 특히 재키 비셋은 금상첨화였다고 회고하고 있다(IMDb. 촬영장에서의 생활. drwoo-2. 2008.11.16).

1981년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서 이 영화의 프리미

어 시사회에 있었다는 회고 또한 눈에 띈다. 영화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에 4천5백만 달러의 전체 예산 가운데 3천5백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제작사의 설명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실제의 이야기인 <인천>은 극적인 군사 이벤트를 지루하고 웃기는 스펙터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맥아더의 올리비에에는 황당하고 다른 배역들 또한 불편해보이며, 프리미어 상영에서 리처드 라운드트리를 만났고 그는 최악의 영화에서의 역할을 사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중국 국경까지 밀어내도록 미군과 연합군을 도운 위험하고 대담한 작전이었고, 그 후 중국의 인민군은 국경을 넘어 연합군을 현재의 DMZ까지 밀어냈다는 역사적 기록과 함께, <인천>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영화라고 소개한다(IMDb, 터무니없는 수치. voacor. 2008.1.19).

영화는 비메오(Vimeo)에서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제목은 2부로 구성된 '인천 A TV 다큐멘터리'이다(IMDb, 비메오에서 찾은 영화. hamburger15. 2011.10.17). 이 영화에 대한 지지가 적은 이유는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몇 번 상영되었지만, 저작권 분쟁으로 VHS나 DVD로 출시된 적이 없다(IMDb, 놀라운 영화. SDockorockerty. 2005.5.22). 대부분의 의견이 영화를 낮게 평가하지만, 다음의 사례는 다른 전쟁영화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이다.

<진주만 Pearl Harbor>보다 좋지만 물론 최상은 아니다. 분장 때문에 성도착자처럼 보이는 올리비에에는 이 영화에서 햄릿이 아니며, 단지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액션장면이 많은데, 80년대 초의 다른 영화들처럼 연출되고 연기되고 있다. 영화에서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 전쟁의 전개 상상만큼이나 낡은 차를 타고 서울을 거쳐 부산까지 가야하는 비셋의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가로운 오후 시간이 주어진다면, 보기에 좋은 영화이다(IMDb, 이것은 좋은 영화이다. holt-lover. 2007.5.29).

이 영화는 <패튼 Patton>,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처럼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웅대한 전쟁영화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천상륙은 인상적이며

맥아더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는 과히 전설적이다. 작전은 상당히 흥미로우며,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인다. 실화로서 <인천>의 작전 시퀀스는 오락적이다(로튼 토마토. TheDudeLebowski65. 2013.8.29).

적어도 <인천>의 전투 시퀀스들은 잘 만들어 졌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전쟁장면은 최고 수준이며, 시각적으로도 성공적이다. 음악 또한 매우 좋다. 내 인생에서 한국전쟁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적절히 배치된 전투 시퀀스는 매우 재미있고 많은 비평가들의 혹평과는 거리가 멀다(로튼 토마토. Harry W. 2013.3.28).

위의 전투 소품 등과 관련해서 영화의 전투장면에서 나타난 오류를 지적한 글도 있다. 전투장면은 나쁘지 않으며, 액션, 전략, 폭발, 어느 정도의 사실성, 폭발 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포를 제외하고는 군사장비들이 적합하지 않다. 모든 북한군들이 스텐 기관총과 엔필드 소총을 들고 있다. 실제로는 PPSH-41 경기관총, 모신-나강 M38/M44 소총, 맥심 기관총을 사용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군 탱크는 T-34로 불리는 것이었지만, 영화에서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 그것은 미제 M-41 위커 불독 탱크로 알아채지 못하게 위장을 한 것이다. 전쟁영화는 예산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관객은 영화에서 미군과 북한군이 동일한 탱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아챌 수 있다. 또한 등대 공격 장면에서 벤 가자라는 실외에서는 MP-40 기관총을, 실내 쏠에서는 M3 기관총을 들고 있다(잘못된 군사장비. Aylmer. 2007.10.25).

역시 <인천>의 감독과 배우들에 대한 인상은 가혹하다. 그 예로, “나는 항상 <인천>이 얼마나 나쁜가를 보고 싶었다. 역사학자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역사적 사건에 관한 부정확한 영화이며 연기와 각본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1년에 극장에서 영화를 본 몇 안 되는 관객 가운데 하나였고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IMDb, <인천>이 얼마나 나쁜가. JH_Kalashnikov. 2007.4.5)”거나 “올리비에, 토시로, 페르제피, 비셋, 샤리프가 등장하는 영화가 그렇게 형편없다니(IMDb, 이 영화를 봐야 한다. MitchConnor24. 2009.9.25)” 등이 있다. 이 영화의 가장 많은 혹평 중 하나는 잘못된 캐스팅이

나 잘못된 연출이든 맥아더 역의 로렌스 올리비에의 빈약한 연기이다. 껍을 제외하고 누가 맥아더에 잘 어울리겠는가? <안지오의 영웅들Anzio>(1968)에 출연한 케네디(Arthur Kennedy)가 나이와 외모가 가장 비슷하다(IMDb. 누가 맥아더에 잘 어울리는가: Aylmer. 2007.10.18)는 의견도 있다. 1980년대 메드베드(Medved)의 저서에서 벤 가자라가 기자에게 골든 터키상을 수상하고 최악의 영화 50편에 든 <인천>에서의 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영화는 배우의 영화가 아니라, 폭탄이 떨어지는 영화이다. 소리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뿐이다(가자라의 회고. TheWesternBreed. 2007.3.27).” 특징적인 것은 로렌스 올리비에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좋은 연기 보여준 한국배우들에 관한 인상이 있다는 것이다(IMDb. 위대한 한국배우들, 쓰레기 되다. ArmandFancypants. 2006.3.7). 다음의 리뷰는 캐스팅에 관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영국 감독의 선택은 무난하다. 그러나 세 명의 주요 배역 가운데 두 명이 왜 영국배우인가. 다른 배역들은 모두가 미국배우이다. 올리비에, 비셋, 가자라는 거친 기자 역의 안센만큼이나 불쾌하다. 돈이 이들 배우들의 출연을 유도했을 것이다(IMDb. 영국감독과 두 명의 영국스타. stuartfanning. 2004.5.26).”

문헌을 통해 살펴본 전문가 평가와 달리, 관객의 인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기사와 문헌 등에 기록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예산, 제작사, 감독, 배우, 소품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비평 수준의 리뷰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한 경험 등에 이르기까지 관객의 인식 양상은 찬반을 넘나든다. 예를 들면, 감독과 배우는 별로지만 전투장면은 대단했다거나, 영화의 거의 모든 것이 완성도 면에서 부족하지만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영화의 가치 면에서는 좋다는 식이다. <인천>을 맥락의 차원에서 프로파간다로 취급하고 영화의 차원에서 줄작으로 평가하는 전문가의 태도에 비해, 관객은 영화와 맥락의 전제 없이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자신의 실제 경험이나 관람 경험을 토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인천>에 관한 할리우드의 전문가 평가와 관객의 인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그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와 관객 모두 <인천>에 부정적이지만, 경험적 인식에서는 서로가 전제를 달리하며 그 결과 또한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다.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전문가는 <인천>이라는 영화매체가 담아내야 하는 전통적인 미학을 전제로 평가한다면, 그러한 미학적 전제에 관한 경험이 없는 관객은 자신의 인식 경험에 의존한 평가를 행한다. 동일한 전제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인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며, 공유해야 할 전제 없이 관람의 경험에 따른 관객은 긍정과 부정의 차이를 넘어 연기, 소품, 촬영현장 등 다양한 요소를 세밀하게 인식한다. 즉, <인천>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는 천편일률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관객은 영화를 평가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할리우드의 영화제작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촬영한 <인천>은 당대의 한국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한 영화이다. 선행연구인 『<인천(1981)의 제작과정과 영화적 유산』에서 다룬 바 있는 <인천>의 제작에 참여한 원로영화인들의 구술에 따르면[15], <인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할리우드의 제작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후의 한국영화제작 시스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세계영화사에서 실패한 영화로 기록되면서 거의 잊혀진 영화의 역사적 흔적을 추적한 이유이다. 또한 한국전쟁의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라는 소재가 영화로 만들어졌고 곧 개봉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영화 <인천상륙작전>(2016)의 제작사는 이전에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포화 속으로>를 만들어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비평가 관객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에서 다룬 <인천>이 <포화 속으로>와 동일한 제작사, 연출자, 각본가가 참여한 <인천상륙작전>에 역사적이고 영화적인 교훈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Terry Kelleher, "Inchon' reflects only the cult of bad moviemaking," *The Miami Herald*, 5C, 1982.9.20.
- [2] Vincent Canby, "Inchon,' at last. *The New York Times* (The New York Times Company)," C9, 1982.9.17.
- [3] Lawrence H. Suid, *Guts & Glory: The Making of the American Military Image in Film*,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pp.395-401, p.720, 2002.
- [4] Michael Goldfarb, "Notes From All Over," *The Washington Post* (The Washington Post Company), E3, 1982.5.23.
- [5] Desmond Ryan, "On movies-For the moviemakers, it was a billion-dollar summer," *The Philadelphia Inquirer*, p.103, 1982.9.19.
- [6] Ben Child, "Liam Neeson to play famed US general in South Korean epic Operation Chromite," *Guardian*, 2015.8.12.
- [7] Don Aucoin, "Really gross earnings," *Boston Globe* (Globe Newspaper Company), p.12, 1989.11.19.
- [8] Richard Schickel, "Inchon," *TIME Magazine*, 1982.10.4.
- [9] Chris Bell, "Inchon: the bomb Korea dropped on Hollywood," *Telegraph Film*, 2015.5.2.
- [10] Variety staff, "Inchon Review," *Variety*, 1980.12.31.
- [11] Gary Arnold, "Inchon': An Epic Bungle," *Washington Post*, 1982.9.17.
- [12] Vincent Canby, "Inchon,' at last," *The New York Times* (The New York Times Company), C9, 1982.9.17.
- [13] Leah Rozen, "Inchon Review," *People Magazine*, 1982.11.1.
- [14] Kenneth Lloyd Billingsley, "Hollywood's Missing Movies," *Reason*, 2007.7.22.
- [15] 김종국, "<인천>(1981)의 제작과정과 영화적 유산," *한국방송학보*, 제28권, 제1호, pp.167-205, 2014.

저자 소개

김종국(Jong-Guk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

<관심분야> : 영상이론 및 제작